

2021 | ANNUAL REVIEW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KOSTAT
Centre of Excellence for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sia and the Pacific



통계청
Statistics Korea

2021 ANNUAL REVIEW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CONTENTS

- 03 발간사
- 06 상반기 주요활동
- 09 하반기 주요활동
- 17 CoE 온라인 홍보활동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2021 리뷰」를 발간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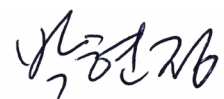
2019년 5월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한국통계청(KOSTAT)은 그간의 논의의 결실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범죄통계 발전과 통계작성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를 대전광역시에 개소하였습니다. 올해로 설립 4년차를 맞이한 센터는 범죄통계 작성 및 공표 과정이 국제기준과 지침에 잘 부합되도록 방법론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아·태 지역 범죄통계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회원국 대상 이러닝 교육 실시, 온라인 미팅을 통한 기술 지원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해왔으며, SDG16 지표 측정을 위한 웨비나 시리즈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UNODC본부와 중남미 협력센터와도 협력하여 불법자금흐름 추적, 인신매매 등에 관련된 연구과제도 수행 중이며, 아태지역의 교도소 수감인원 실태를 시각화하여 요약분석하였습니다. 통계청과도 주기적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한국범죄분류 개발에 협력하였으며, 한국의 개발 선도사례를 국내외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센터는 통계청 및 UNODC와 협력하여 지역 멘토로서 아·태지역을 넘어 국제적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11월에는 ‘제6회 거버넌스, 및 정의 통계 국제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여 각지역, 정부부처, 연구기관 참가자 등과 함께 다양한 논의와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력센터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기 위해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2021 리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뷰가 협력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협력센터의 회원국 대상 교육, 기술지원 및 연구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장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2021 리뷰

Annual Review

Photo Gallery



2021.3.12.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참가



2021.5.7.
카자흐스탄 대상 CVS 소개 온라인 세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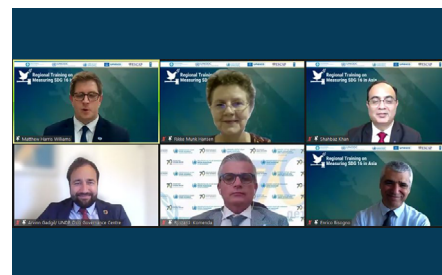
2021.6.14-17.
UNODC-한-멕시코 공동 주최 제5회 범죄통계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1.6.21.
2020 아시아범죄학회,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 통계 세션' 진행



2021.8.31.-9.2.
UNSD-KOSTAT 공식통계 국제컨퍼런스 참가



2021.09.16.-11.4.
아시아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16(SDG 16) 측정 지역트레이닝 공동 개최

UNODC-KOSTAT Centre of Excellence for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sia and the Pacific



2021.10.3-6.
UN 세계 데이터 포럼 2021 참가



2021.10.12-13.
지역자문그룹회의 개최



2021.10.22.
대한민국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행사 공동 개최



2021.10.26.
제6회 챔피언스 워크숍 개최
- 통계청, 한국Interpol
중앙사무국



2021.11.17-20.
미국범죄학회(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참가



2021.11.25.
제6회 한국범죄분류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세미나 참가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 범죄통계 현대화 논의

2021년 3월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가 일본, 교토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55년부터 5년 주기로 주최하고 있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는,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민간전문가들 사이 활발한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년 예정이었던 총회가 2021년 3월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중남미 협력센터 및 아·태 협력센터는 3월 12일 개최된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현대화(Modernizing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세션에서 범죄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국제표준에 따른 범죄통계자료수집 및 범죄기록 관련 회원국 모범사례, 범죄피해조사, 빅데이터 및 기타 기술 이용 사례에 관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회원국 모범사례로 멕시코의 지역안전진단이 언급되었고, 아태지역 모범사례로는 호주, 카자흐스탄의 행정시스템, 그리고 필리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6(SDG 16) 지표 측정을 위한 빅데이터의 실험적 이용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증거기반 범죄예방전략에 앞서 범죄통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동의 하에 교토 선언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초안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2. 체계적이고 통일된 통계자료수집 및 분석 기준에 따른 증거기반 범죄예방전략 향상 및 국제범죄분류(ICC)에 따른 전략의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23. 통계지표개발을 고려한 범죄동향에 대한 데이터 품질 및 가용성을 향상시키고 해당 통계자료의 자발적 공유, 범죄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제범죄동향에 이해를 높이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중남미 및 아태지역 주재 협력센터는 높은 수준의 범죄 범죄통계 생산,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위한 회원국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UNODC-한-멕시코 공동주최 제5회 범죄통계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1년 6월 14일-17일 4일간 중남미, 아태 협력센터 공동으로 제5회 거버넌스, 범죄 및 정의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overnance, Crime and Justice Statistics)를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격년으로 열리는 이번 제5차 범죄통계 국제회의에서는 새로운 통계분석 방법론 개발 및 통계 소스에 대해 논의하고, 데이터 수집 및 비교 가능성의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증거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통계적 방법론 사용을 장려하고, 국제 협력 강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총 14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션당 평균 약 50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했으며, 총 60개국에서 2,500명의 참가자들과 69명의 국제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협력센터는 ‘아시아 및 태평양 범죄 데이터 문제’ 세션을 주관하였습니다. 세션에서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3가지 범죄 문제인 인신매매, 형사사법제도 및 부패를 소주제로 다뤘고,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증거기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도모해야 함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논의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태지역에 만연한 인신매매에 대한 검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국가 간 정의 및 분류의 차이로 인한 데이터 격차 극복 방안
2. 효과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구조적, 조직적 및 문화적 수준에서 고품질 데이터와 제시된 해결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아태지역 형사사법 시스템 문제 해결 논의

3. 부패 사례를 측정, 기록 및 분석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 방식과 지역적으로 부패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의 모범 사례 소개

「2020 아시아범죄학회」에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 통계' 세션 진행

아시아범죄학회(Asian Criminological Society)는 학계, 연구원,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 범죄학 분야의 최신 동향을 논의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당초 2020년으로 예정되었던 컨퍼런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1년 6월로 연기되어 개최되었습니다.

제12차 회의 주제는 〈아시아 문화에 따른 범죄와 처벌: 범죄학의 전통과 혁신(Crime and Punishment under Asian Cultures: Tradition and Innovation in Criminology)〉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협력센터는 〈증거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범죄측정: 국제적 접근 및 데이터 기반 혁신(Measuring Crime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Data-Driven Innovation)〉에 대한 세션을 주최했으며, 회원국들의 범죄통계 사용 방법 및 대한민국 통계청의 한국범죄분류개발 상황 등 아래 내용으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1. 통계를 위한 국제범죄분류(ICCS)의 한국형 한국범죄분류(KCCS)의 개발; 범죄분류에 대한 국제표준 채택에 따른 회원국 기대효과
2. 일본 범죄정책을 예시로 범죄통계자료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오인의 소지에 대한 논의
3. 범죄자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가 모델 중 하나인 위험성(Risk)-요구(Need)-반응성(Responsivity) 모델에 대해 비판적 접근 방식 검토

협력센터는 최신 방법론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가 정책수립에 필요한 범죄통계의 생산, 수집, 분석을 위한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아시아범죄학회 및 학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하반기 활동

「UNSD-KOSTAT 공식통계 국제컨퍼런스」 참가

유엔통계위원회(UNSD)와 통계청은 <리스크 이해와 완화에 있어 데이터 및 통계의 역할: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얻은 교훈(The Role of Data and Statistics in understanding and mitigating risk: What we have learned from crisis situations, including the global pandemic)>이라는 주제로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화상으로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Official Statistics)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통계 시스템과 타 부처 간의 협력과 더불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현상을 이해를 위한 시의적절하며 세분화된 데이터, 전염병 상황에서 대응 체계의 모색과 자원의 적절한 배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력센터는 <새로운 기술, 재정적 요구 사항 및 후속 단계(Addressing the New Technical and Financial Needs and Next Steps)> 세션에서 패널로 참가하여 개발을 위한 큰 틀 안에서 범죄통계 통합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데이터 접근 가능성 확장과 아울러 이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협력센터는 회원국들의 범죄통계 혁신 계획을 뒷받침하고자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국의 국제범죄분류(ICC)의 이행,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데이터 수집 방식의 향상을 위한 지역내 교육 및 범죄 피해자와 부패 현황 설문조사 이행을 위한 설문조사 방법론 관련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엔 기구들과 협력해 「아시아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16(SDG 16) 측정 지역트레이닝」 개최

협력센터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6(SDG 16)의 세부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회원국의 지표에 대한 이해 및 측정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오슬로 주재 유엔개발계획 거버넌스 센터(UNDP Oslo Governance Centre),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UNOHCHR), 유엔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 (UNESCAP),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UNESCO) 등 유엔 전문기구 및 산하기구와 협력하여 9월16일부터 11월4일까지 총 8회의 목요일 웨비나(Regional Training on Measuring SDG 16 in Asia)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SDG 16 지역트레이닝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을 대상으로 개최된 교육에 이어서 세번째로 진행된 것이며, 협력센터에서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 회원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6 지표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배포와 관련한 기술적 역량을 증진하고 데이터 생산자와 사용자 간 교류를 활발히 해 각 위치에서 당면한 과제를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90분간 진행된 8번의 웨비나에서 세션마다 평균 600여명이 참여하였고, 총 83개 국가에서 1,500여명이 트레이닝에 등록하였습니다. SDG 16 허브(<https://www.sdg16hub.org/>) 웹사이트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추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관련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각 웨비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6에 해당되는 3개의 지표에 대해 논의하였고, 각 지표의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 유엔 기관들이 발표를 이어가는 동시에 몽골, 키르기스공화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회원국에서 사례를 발표하면서, 각기 다른 형사사법시스템과 사회환경에서 당면하는 정책결정 관련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논의분야로는 살인, 밀수, 조직범죄, 등 여러 형태의 범죄 및 부정부패 척결, 형사사법 정의 시스템 강화, 차별 없는 공적 서비스 제공 및 접근가능성 향상, 인권보호, 출생 등록, 공공데이터 개방 등의 포괄적인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회원국들의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이 행사는 2022년에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UN 세계 데이터 포럼 2021」 참가

이번 UN 세계 데이터 포럼(UN World Data Forum 2021)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어젠다 관련 파트너십, 조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유엔 통계 위원회 및 고위급 그룹(HLG-PCCB)의 지도하에 유엔 경제사회국의 통계부서의 지원을 받아 스위스정부와 스위스통계청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포럼은 데이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계 각 계각층의 데이터 전문가 및 사용자를 초청하여, 데이터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고위급 정치 및 재정적 지원을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의 질적 향상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태 협력센터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멕시코 통계청, 중남미 협력센터와 더불어 <코로나19 관련 가짜 백신 및 불량 의약품 밀매 예방과 대응적 정책결정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시스템(Real-time data collection systems for agile policymaking and foresight to prevent trafficking of Covid-19 related falsified vaccines and other medical products)>에 관한 세션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션의 기조는 각각 다른 데이터 수집 시스템들이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확성, 유효성, 및 투명성을 기준에 부합하면서 실시간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예측 분석 및 마약 밀매, 위조 의약품 밀매, 인신매매, 살인, 재산 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은 여러 범죄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질적 향상과 범위 확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 박현정 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일상 변화와 기술발전에 힘입은 대면조사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범죄측정 방법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자료수집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의 통계작성을 위한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센터가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데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디지털화로 인한 신종범죄의 위협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범죄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하는 혁신 사례를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2차 지역자문그룹 회의」 개최

협력센터는 그간의 진행 상황 및 성과를 발표하고 검토하는 제2차 지역자문그룹(Regional Advisory Group)회의가 2021년 10월 12일-13일 양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협력센터의 지속적인 연구활동 및 지역내 기술지원, 협력활동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자문그룹은 통계, 범죄, 정책결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을 보유한 유엔 산하 기구, 지역 회원국,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력센터가 앞으로 우선 순위로 지정해야 하는 세부분야에 대한 논의 및 아태지역 자료 수집에 있어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과 사이버 범죄 및 여성에 대한 폭력(VAW) 등의 추가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 및 추후 업무 진행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 분석을 통한 협력센터 업무 이해도 향상
 -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분석 툴을 이용하여 협력센터 관련 이용자의 트래픽 파악
2. 이해관계자(국가 기관, 비영리단체, 통계청, 학술 기관 등)의 협력센터 활동 참여도 향상
 - 이해관계자 관계 분석 및 니즈 맵핑을 통한 참여 전략 수립
3. 지역 대화를 위한 허브로서의 협력센터의 역할 강화
 - 각국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최우수 사례 및 경험 공유
4. 국가, 지역적 수준에서 범죄 및 범죄 정의 통계 우선시화 및 통계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모범 사례 공유
 - 정책결정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역할에 대한 이해도 향상
5. 행정 및 여론조사 데이터에 대한 각국의 니즈 파악
 - 국가 분류 시스템을 위한 행정 프로세스 강화 및 국제범죄분류(ICC) 이행
 - 부패 조사 (Corruption Surveys) 및 범죄 피해 조사 (Crime Victimization Surveys)

개발

6. 협력센터의 지역 내 역할 홍보 및 각 회원국의 직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 협력센터 지원 내용 및 항목 작성하여 지역 회원국에 홍보

7. 아래 주요 주제 분야에 대한 추후 연구 진행

- 사이버범죄
- 교도소 초과수용
- 여성에 대한 폭력
- 야생동식물 범죄
- 부패
- 인신매매

위와 같이, 자문그룹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협력센터는 2022년에도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범죄 통계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회원국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행사」 공동 개최

1991년 최초 유엔 가입 후, 2021년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주재 총 18개의 유엔 전문기구 및 산하기관*과 외교부와 공동으로 기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각 세션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가능케 하기 위한 주요 당면 과제 및 다자주의 시대의 미래를 모색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책 세션에서는 각 국제기구에서 초빙한 해당 분야 저명인사, 관련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범세계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주요 과제와 유엔을 포함, 미래지향적 다자주의 실현에 있어 유엔 기구 및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UNODC-KOSTAT CoE),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개발계획(UNDP), 유니세프(UNICEF),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NOWPAP),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UN-APCICT)

협력센터 박현정 센터장은 세번째 세션에서 <혁신과 디지털 전환(Innov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이라는 주제로, 통계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기술 혁신 필요성 및 회원국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증거기반 정책결정 지원 과정에 대해 평가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교부 국제기구 국장 및 한국 주재 유엔 기구의 수장들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으며 매 세션에 약 300명 이상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초 오프라인으로 계획되었으나, 팬데믹 상황 악화로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주재 유엔 기구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 및 적용에 있어 다자 간의 협력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미국범죄학회」 참가

2021년 11월 17일-20일, 학계와의 교류강화를 위해 협력센터는 미국범죄학회(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제76회 연례학술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미국범죄학회는 범죄학과 범죄사법 분야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학술 단체입니다.

제76회 연례학술대회의 테마는 <분열된 시대에서 바라보는 과학과 증거 기반 정책(Science and Evidence-Based Policy in a Fractured Era)>로, 80개 세부주제와 900여개 동시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옥스포드, 캠브리지, 보스턴대학 등 전세계 우수 대학, 학술기관 및 공공부문 범죄사법 전문가 및 학자들과 외에도 싱크탱크, 시민단체, 비정부기구와 민간단체 등 수많은 기관에서 2,0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협력센터는 재미한인범죄학회(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KOSCA)에서 주최하는 미팅에서 학회 주요 임원진과 인적교류를 통해 폭넓은 네트워킹을 하였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였으며, 재미한인학자들과 범죄통계 방법론 및 새로운 혁신적인 연구주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남·동남아시아에서의 미래 연구전망(Research Prospects in South and South-East Asia)> 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범죄통계자료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센터, 미국범죄학회, 재미한인범죄학회 간 추후 공동 연구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하였습니다.

「제6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 참가

협력센터는 11월 25일 제6회 한국범죄분류(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통계청, 법무부,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와 관련 학술연구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범죄분류 개발방향과 범죄통계 작성 방법론을 논의하는 장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국제범죄분류(ICCS) 도입에 따른 성과와 도전과제들에 대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술연구팀은 통계청의 국제범죄분류(ICCS)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82.3%정도 도입에 성공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국범죄분류의 개선 방안(Areas of Improvements for KCCS)〉이란 주제의 세션에서는 경찰인재개발원의 이동규 교수가 〈범죄통계 국제비교 제고를 위한 분류 활용 방안(Measures to utilize criminal classification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riminal statistics)〉에 관한 발표를 하였으며, 협력센터의 박현정 센터장이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한국의 범죄분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토론에서 국제범죄분류(ICCS)의 개발방향과 범국가적 도전과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요 주제로는 경찰통계자료의 효용성, 국가범죄통계의 대안적 자료 수집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 시범적으로 국제범죄분류를 경찰통계자료에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범죄 추세에 맞추어 국제범죄분류의 업데이트 필요성 등이 있었습니다.



아·태지역 수감인원 요약분석 e-간행물 (Regional Snapshot: Prison Popul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첫 발간

2000-2019년도 사이 전체 수감 인원이 40%이상 증가하면서 교정시설 과밀 문제가 아·태지역에서 점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547만여명의 사람들이 아·태지역 수용시설에 수감되었으며, 이는 전세계 수감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태지역 수감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센터는 <아·태지역 수감인원 요약분석 e-간행물>을 처음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구체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면서도 인포그래픽 등이 사용되어 여러 분야의 정책결정자들이 통계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지, 증거에 기반한 범죄예방 및 교도소 유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행된 요약분석자료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아태지역 수감인원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아·태의 소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범죄자료의 수집의 향상과 정책지원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 소지역의 요약분석 시리즈를 연속해서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태지역 범죄대응과 예방방안 향상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범죄통계허브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형사사법체계 유관기관 등 이용자에게 한발짝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oE 온라인 홍보활동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2021.6.7-11.
범죄-데이터-정책 주간 1



2021.06.7-11.
범죄-데이터-정책 주간 2



2021.06.7-11.
범죄-데이터-정책 주간 3



2021.6.21.
영문 브로셔 재발간



2021.9.1.
협력센터(CoE) 웹사이트 개편
(<https://coekostat.unod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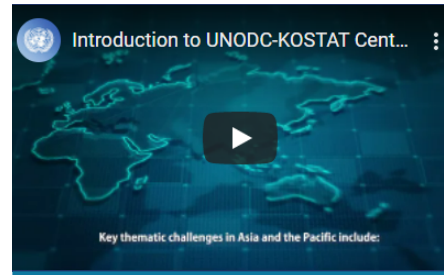


2021.9.16.-11.4.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6 측정-
아시아 웨비나 홍보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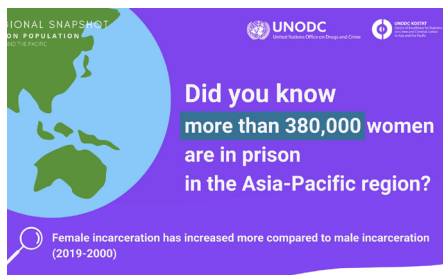
UNODC-KOSTAT Centre of Excellence
for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sia and the Pacif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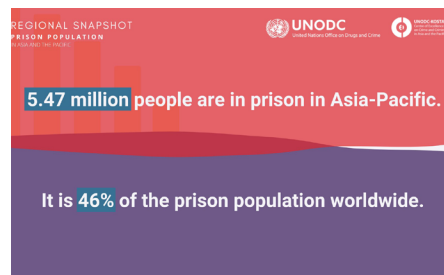
2021.9.16. -11.4.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6 측정-
아시아 웨비나 문답식 6개 시리즈
영상



2021.12.2.
협력센터(CoE) 소개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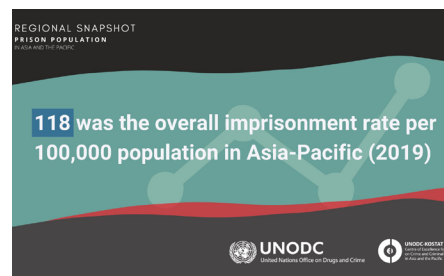
2021.12.20.
아태지역 수감인원 요약분석
e-간행물 홍보물 1



2021.12.20.
아태지역 수감인원 요약분석
e-간행물 홍보물 2



2021.12.20.
아태지역 수감인원 요약분석
e-간행물 홍보물 3



2021.12.20.
아태지역 수감인원 요약분석
e-간행물 홍보물 4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KOSTAT
Centre of Excellence for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sia and the Pacific



통계청
Statistics Korea



coekostat.unodc.org

